전북 상생발전 정책 발굴·연구 힘 모은다

전북연구원-LX공간정보연구원, 업무협약…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정책 홍보 등 공동 추진

전북연구원(원장 권혁남)과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원장 손종영, 이하 LX공간정보연구원)이 전북 상생발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원 간의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공동 연구 등을 통한 지속적인 교류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22일 전북연구원 컨퍼런스홀에서 '전북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전북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선제적인 정책, 지역사회와의 상생 방안 등을 함께 발굴하기 위한 협력기반을 한층 더 공고히 했다.

전북연구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은 22일 전북연구원 컨퍼런스홀에서 '전북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향후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정례적 상호 연구 교류 ▲지역 관련 공동연구 추진 ▲지역발전 정책 발굴 협력 ▲창업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활동 ▲연구 성과 및 정책 홍보의 공동 수행 등을 추진하며, 상호 발전적 관계 증진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전북도와 LX는 지난해 1월 공간정보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공간정보 구축과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번에 양 기관의 싱크탱크인 연구원 간의 업무협약이 체결되면서 전북도-LX 간의 교류협력 또한 더욱 긴밀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 이후, 양 기관은 현재 주요 이슈에 관한 공동기고문을 작성하고, 국책사업발굴 포럼 참여를 통한 지역 발전 사업의 발굴, 상생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공동 워크샵을 개최할 계획으로, 향후 전북 지역 발전을 위한 양 기관의 활동에 귀추가 주목된다.

권혁남 전북연구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북연구원과 LX공간정보연구원이 호혜적 관계 속에 지역 혁신성장 선도 주체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며, 지역발전을 위한 시너지를 창출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 쌀 '예담채 십리향미' 판로 확대

롯데슈퍼·롯데마트·마켓컬리 등 입점 판매

전북도 쌀 '예담채 십리향미(米)'가 소비자의 긍정적인 반응에 힘입어 판매처 확대에 나선다.

도는 지난 3월 전국 롯데슈퍼에서 공동브랜드로 출시한 '예담채 십리향미'가 성황리에 판매되고 있다며, 롯데마트, 마켓컬리, 밀키트(간편요리) 시장 등으로 판로를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공동브랜드 쌀은 최고급 특등쌀로 가공해 완전미(10kg)와 무세미(4kg) 등 두 가지로 판매하고 있으며, 전국 308개 롯데슈퍼에서 소비자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에 5월부터는 전국 111개 롯데마트에도 출시할 예정이다.

또, 4월부터는 소비자에게 프리미엄 시장으로 인정받고 있는 온라인 채널 '마켓컬리'에 입점해 판매하고 있다.

십리향은 식품 시장에서도 인정받아 십리향을 활용한 다양한 식품들이 활발히 개발되고 있다.

지난 1월 간편요리 세트(밀키트) 업체 '마이셰프'에서 십리향을 이용한 솥밥 3종 세트(불고기, 스테이크, 장어)를 신상품으로 출시해 소비자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 전통 식품기업에서 십리향을 활용해 조청·잼을 개발했다.

전문 음식연구원 등에서는 구수한 향을 강점으로 십리향으로 식혜·라이스밀크·누룽지를 개발해 5월 이후 출시를 앞두고 있다.

한편, 도는 '십리향'의 안정적 시장정착을 위해 행정·기술원·농협 등이 참여하는 브랜드 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기관별 업무협업과 단계별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유호상 기자

도, 저소득층 자격증 취득 지원

전북도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자격증 취득 등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운영하며, 자활·자립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자립 욕구가 낮은 자활사업 참여자에게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취·창업을 통해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단에서 일하는 자활사업 참여자에게 국가자격증 등 전문 자격교육을 시행해 취업으로 이어지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자활근로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격증 취득과정은 운전면허를 비롯한 요양보호사, 컴퓨터, 지게차, 바리스타, 제과제빵 과정 등의 교육이 있다.

사업 시행 이전 취·창업 희망 분야를 묻는 참여자들의 적성과 욕구를 반영한 만큼, 자격증 과정은 비교적 취업과 창업에 유리해 자립의 동기 부여에도 한몫을 하고 있다.

도는 지난 2015년부터 자활기금을 활용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전북지역 자활사업장에서 155명이 자격증 과정을 이수해 136명이 운전면허 등 국가자격증과 민간자격증을 취득했다.

매년 평균 50명의 대상자를 선정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들 중 대부분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고, 자활기업 및 일반기업(택배, 요양업)에 취업으로 이어져 자활·자립을 도모하고 있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상용차산업 활성화 대책 마련 위한 발전협의회 개최

전북도가 침체하는 상용차산업 살리기에 두 팔 걷고 나섰다.

중장기 활성화 방안부터 당장의 단기 대책 마련까지 해결책 찾기에 집중하고 있다.

도는 22일 '전북도 상용차산업 발전협의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현재까지 발굴한 상용차산업 발전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제2차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상용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우선 단기 대책을 발굴하는 것도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었다.

이에, 도는 단기 대책부터 중장기 대책까지 다양한 대책을 발굴하기 위해 자동차융합기술원과 함께 완성차, 부품업체, 특장차 업체뿐만 아니라 실제 상용차 운전자들의 의견까지 폭넓게 수렴했다.

이날 3차 회의는 수렴한 의견들을 토대로 분야별, 시기별로 실행 가능한 사업들을 발굴해 상용차산업 활성화 추진방안 잠정안을 만들어 보고하는 자리였다.

전북도는 이날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발전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를 내실있게 운영하면서 발굴 과제들의 완성도를 높여가며 확정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와 자동차융합기술원을 중심으로 경제통상진흥원, 전북테크노파크 실무자들과 완성차 및 부품업체 관계자들이 지속해서 실무회의를 개최해 예산대책, 세부 추진계획 등을 구체화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유호상 기자

도, 올해 청년소통 공간 '청년마루' 조성지역 무주군·장수군 선정

전북도가 2021년 청년소통 공간 '청년마루' 조성지역으로 무주군과 장수군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지난 21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청년센터장, 청년대표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청년마루 공모사업' 심사·선정을 진행했다.

'청년마루'는 지역 청년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시·군이 청년 공간을 조성·운영하고, 도에서는 청년정책 연계 서비스 및 청년역량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지역거점 청년 전용공간 조성사업이다.

심사는 프로그램 적정성, 공간 접근성, 청년 참여 및 지역 거버넌스 활용도 등의 기준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선정된 무주군과 장수군은 평소 지역에 적합한 청년 프로그램들을 청년단체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이번 사업을 계획, 청년 소통 공간 제공, 청년정책 발굴 등포럼 운영 등이 사업계획에 포함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나왔던 위원들의 의견들을 반영해 사업계획서를 보완, '청년마루' 공간 조성을 조속히 완료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도는 앞으로 청년소통 공간이 없는 군지역에 청년소통 공간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유호상 기자

온라인 글로벌 교류·국외 홍보 박차

전북 아태마스터스대회 조직위, 주최기구 IMGA와 협력 강화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송하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 회의가 어려워짐에 따라 영상회의를 통해 주최기구인 국제마스터스대회협회(IMGA)와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조직위는 IMGA와 유기적 관계유지를 위해 월 1회 소통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 21일 온라인 국제적 홍보체계 구축을 위한 영상회의를 진행했다.

전 세계인들에게 이 대회를 알리기 위해 IMGA에서 운영하는 공식 홈페이지와 SNS에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국제연맹(IF)과 전 세계 마스터스대회 참가자 7만여 명에게 배부되는 IMGA 발행 월간 뉴스레터에 홍보 및 관광 등 대회 관련 소식을 실어 국외 홍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대회 1년 연기에 따른 개최일 변경과 상징물 소유권 및 인터넷 계약 수입에 관한 사항과 등록 서류 등에 대해 지속적인 소통·협의를 통해 IMGA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냈다.

조직위는 앞으로도 주기적인 영상회의로 소통하며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이강오 사무총장은 "2023 전북 아태마스터스대회는 전 세계 각지에서 참가하는 대회로, 국제기구와의 원활한 소통이 중요한 만큼 지속적인 온라인 글로벌 교류 활동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3년 5월 12~20일까지(9일간) 전라북도에서 개최될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는 태권도, 배드민턴, 육상 등 26개 종목에 걸쳐 진행되며, 생활체육을 사랑하는 만 30세 이상이라면 전 세계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